



데이터 규제 완화도 벼락... 대통령만 뛰는 혁신

“개인정보보호, 독립 위원회 이관”
與, 시민단체 요구 반영... 정부 난색
은산분리 완화-원격의료는 與 반발
참여연대 “규제 푸는 4대입법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원격의료 허용이 여당 내 이견으로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도 당장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이관하고 개보위를 독립 기구로 격상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방침에 일부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하기 직전 김태년 정책위의장 주재로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등 관계부처 차관이 모인 가운데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통신 관련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방통위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보위로 넘기는 데 반대했다. 방통위 관계자가 이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이관하려면 다른 규제 권한을 달라”고 하자 민주당 측 관계자는 고성을 지르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한다.

이렇게 당정청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의 데이터 규제혁신 현상방문 당일 예정됐던

개보위 권한 강화 및 독립기구 격상 방침 발표는 보류됐다. 청와대는 그 대신 이통과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가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만 발표했다.

개보위 권한 강화를 통해 데이터 규제혁신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 핵심 지지층을 달래려던 청와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진보네트워킹센터 등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풀려면 먼저 개보위를 독립기구로 격상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 금융위 등은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산업적 측면의 활용에 더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보위가 개인정보 규제·감독 업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청와대가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뽑아든 규제혁신 카드가 잇따라 정부 여당 내 불협화음으로 제대로 진전되지 않으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당청은 인터넷신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과 금융노조 등의 반발로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날 인터넷신문은행 특별법과 규제샌드박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발전법 등을 4대 반대 입법과제로 규정했다.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당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규제혁신 정책은 한목소리로 야당을 설득해도 쉽지 않은데 여권 내 집안싸움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성문 기자 sukim@donga.com



합치 될까... 개혁입법 운명 걸린 정기국회 개막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오른쪽) 등 국무위원들과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위쪽 화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이 비치고 있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엔 개혁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49개월간 한달도 안쉬고 오른 서울 집값

2005~2008년 기록 갱 최장 상승
아파트 평균가격 7억원 첫 돌파

서울 주택가격이 역대 최장 기간 오르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 164만 채의 평균 가격은 지난달 처음 7억 원을 돌파했다.

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2014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49개월(4년 1개월) 연속 올랐다. 이전까지 집계한 최장 상승기는 2005년 2월~2008년 9월의 44개월이었다.

2014년 8월 한 채에 4억942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지난달 7억2338만 원으로 약

2억 원(42.1%) 올랐다. 강남권에선 이 기간 동안 10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난 곳이 많다. 4인 가족 근로자가 221개월(18년 5개월)간 월급(452만 원·올해 중위소득)을 모아야 하는 돈이다.

서울 집값은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집값 상승의 ‘빡차’를 타지 못한 20, 30대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경제위기가 도터져야 집값이 잡힐까” 같은 반(反)사회적 반응으로 번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젊은 세대의 박탈감을 고려해 경제 원칙에 따른 대책을 세우되,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희 기자

▶A3면에 시리즈

포스코 “5년간 45조원 투자-2만명 고용”

창사 이래 대규모 투자 첫 발표
“일자리 창출” 재계 릴레이 동참

포스코그룹이 내년부턴 5년간 총 45조 원에 이르는 투자를 단행한다.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매년 4000여 명씩, 총 2만 명 고용도 병행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대기업이 고용 및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밝힌 데 이어 포스코도 동참한 것이다. 포스코가 이처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3일 포스코그룹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45조 원을 투자하고 2만 명을 고용한

다”고 발표했다. 45조 원 투자는 과거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투자액(17조7000억 원)의 약 2.5배다. 고용 역시 최근 5년간 채용(7000여 명) 규모의 3배 가까이 늘었다. 포스코그룹이 2023년까지 투자할 분야는 △철강사업 고도화 △신성장사업 발굴 △친환경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 등 세 분야다. 포스코는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LG그룹이 가장 먼저 ‘19조 원 투자+1만 명 고용’ 계획을 발표했고 뒤이어 현대자동차, SK, 신세계, 삼성, 한화, GS도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B1면에 관련기사

“인력 부족한 농업부문 최저임금 부작용 크다”

이재호 농식품장관 “보완 필요”

이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농업 부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력 부족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농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농산물 생산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부처와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달 30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오른 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될 예정이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며 “보완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은 인력이 부족해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영세한 농가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농업 부문에 더 많은 배려를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농업 분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인사를 포함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고용노동부부터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농촌 태양광 발전에 대해 “우량농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진흥지역에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저수지 등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폐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회와 협의의 중이며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해령 기자 herstory@donga.com

▶A5면에 관련기사

‘빌보드 200’ 점령한 BTS
3개월만에 또 1위 A24면



▶B1면에 관련기사

두원공과대학교는 교육에 대한 바른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원공대, 수도권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2019년 신입생에게 배움장학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 72.8%(수도권 가군 취업률 3위)의 취업률로 각자의 꿈을 실현시켜 드립니다.

